

광주출전기

‘광주출전기’ 만든 범능 스님 입적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무등산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웁나 출전하여라

역슬린 민중의 해방을 위해
나가 나가 도침을 향해
출전가를 힘차게 힘차게 부르세

투쟁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혁명의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웁나 출전하여라

조국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나가 나가 목숨을 걸고
출전가를 힘차게 힘차게 부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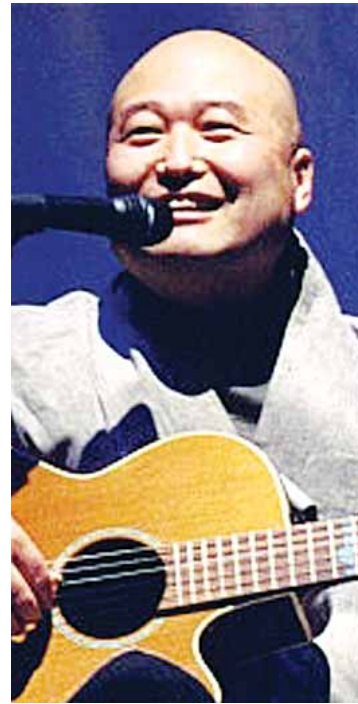
화순출신...80년대 운동권 가요 다수 작사·작곡

평생 대중과 함께 노래 공양...자신 공연도 왕성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무
등산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
1980년대 금남로 등 시위 현장에
서 빠지지 않았던 대표적 민중 가요
‘광주출전기’. 이 노래를 만든 범능
(속명 정세현) 스님이 13일 새벽 2
시 20분께 전남대병원에서 입적했
다. 법랍 20세, 세수 53세. 화순에서
태어난 스님은 지난 1일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80년 5월 광주’를 겪은 뒤
노래 운동에 관심을 두고 87년 노래
패 ‘친구’, 90년 ‘우리소리연구회’를

창단해 활동했다.
1989년 전남대 국악과(과리전공)
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진도에서 인
간문화재 조공래씨에게 소리를 배
운 뒤 93년 머리를 깎고 산문에 들어
갔다.
‘시대의 노래’ 광주출전가는 스님
이 만든 대표곡. 금남로를 비롯, 광
주와 서울 등 최루탄 가스 매캐한
1980년대 전국 민주화 시위 현장에
서 불리며 ‘광주출전기’로 바뀌었다.
이의 ‘꽃아 꽃아’, ‘혁명 광주’, ‘진
군가’, ‘섬진강’ 등 전투적 서정성이
담긴 노래를 만들어 대중과 만나

가 1993년 출연히 출가했다.
출가 이후에도 범능의 노래이야
기라는 명칭으로 ‘오월의 꽃’, ‘민산’,
‘삼경에 피는 꽃’, ‘무소의 뿔처럼’ 등
4개의 음반을 냈고 7개의 명상음반
집을 내는 등 대중과 만나며 노래 공
양을 올렸다. 또 올 5·18 광주민중항
쟁 33주년 기념행사 원각사에서
공연을 하는 등 전국을 돌며 왕성한
자신 공연 활동도 펼쳐왔다.
스님은 그러나 최근 발매된 첫 찬
불음반 ‘나, 없어라’를 준비하면서
고된 작업과 잇따른 자신공연에 따
른 피로가 누적돼 쓰러진 뒤 끝내
잠들고 말았다. 한편, 스님이 몇 해
전부터 안거한 화순 불자사에서는
14일 오후 5시 추도법회, 15일 오전
10시 다비식이 열린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날씨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including temperature,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data for various regions.

광주 광산구가 뜬다

5개 자치구중 인구증가 유일
경제활동 가능 자동차세 1위

광주 광산구(구청장·민형배)의 발
전 속도가 놀랍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
의 가능자인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등 광주의 새로운 핵으로 부
각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2년 12
월 말 기준, 광주시의 전체 인구는
148만3000여명. 5개 자치구 중에서
북구가 44만7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가 39만2000여명으로 뒤를 이
었다. 특히 광산구는 전년도보다 인
구가 감소한 다른 4개 자치구와 달리
9755명이 증가했다. 또한 광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19억원을 부과
한 가운데 광산구가 전체의 3분의 1
가량인 128억원을 차지했다.

이처럼 도시 발전의 지표들이 상승
하면서 범죄발생 건수가 대폭 증가하
는 등 그늘도 생기고 있다.

2012년 발생한 광주지역 범죄건수
6만7272건 중 광산이 1만6149건(24.
0%)을 차지해 북구(1만9615건·29.
2%), 서구(1만6850건·25.0%)에 이
어 세번째를 차지한 가운데 범죄발생
건수는 전년도보다 9.8% 늘어 광주
지역 평균 범죄건수 증가율(5.6%)보
다 높았다. 광산구는 1988년 전남 광
산군에서 광주시로 편입됐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사직대제 열려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제례인 광주사직대제(光州社稷大祭)가 13일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내 사직단에서 열
렸다. 원시 공동체의 제사에서 비롯된 사직(社稷)은 1997년 중단됐다가 2008년 8월30일 재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갈곳 없는 산모들

광주·전남북 분만실·전공의 수 줄어
조산·합병증 '고위험 산모' 진료 비상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분만실 병상
수가 산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대략
미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분만실과 전공의 수가 모두 줄
어들어 조산·합병증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로 대

한모체태아의학회와 진행한 '분만실
및 고위험 임신·분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과 병동·분만실의
병상 수는 총 2243병상으로 불과 1년
만에 6.6% 줄었다. 분만실을 운영하
는 의료기관도 2001년 1570곳에서
2011년 763곳으로 10년 만에 반 토막
나면서 이른바 '분만 취약지역'이 꾸

준히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분만실 병상 수
가 2011년 856개에서 지난해 768개
로 약 100개 가까이 줄었다. 강원도
제주, 전라권의 경우 각각 35병상, 49
병상, 192병상에 그쳤다.
특히 전라권의 산모 수는 4만8260
명, 강원도의 산모 수는 1만1612명

(2011년 기준)으로 산모에 비해 병상
이 부족하고 늙어온 지역의 경우 고
위험 산모가 발생하더라도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
이 전라권은 인구수를 감안하면 사실
상 제주에 비해 병상 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산
과 병동과 분만실의 병상 수는 2010
년에는 2389병상, 2011년에는 2402
개 병상으로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부터
분만을 받지 않는다는 4곳의 병원이
제외되면서 병상 수가 급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주말 광주 30도...전력위기 불안감

이번 주말 광주의 최고 기온이 30
도를 넘을 것으로 보여 전력위기에
대한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13일 이날 오후 2시
17분 전력수급경보 '준비'(예비전력
400만kW 이상 500만kW 미만)를 발령
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 500만kW
미만인 상태가 20분간 지속했다고 발
령 이유를 설명했다. 오후 2시20분께
예비전력은 489만kW 선을 기록했고,
오후 3시에는 565만kW로 다소 여유를
되찾았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

일 광주의 최고 기온은 30도, 다음날
인 16일은 32도까지 올라가는 등 평
년도 비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으로 보여 전력 당국도 비상에 걸렸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8
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
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여름 더위로 지난 3
일부터 이틀간 '준비' 경보가, 지난 5
일에는 '관심'(300만kW 이상 400만kW
미만) 경보가, 7일과 10일에는 '준비'
경보가 각각 내려지는 등 이번 달 전
력경보가 발령된 것은 7일에 이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경로당·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 개설

경로당·마을회관·주민센터·아동
센터·수련관 등 전국 3만9789곳이 폭
염 때 헝기증이 나온 누구나 들어가
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
경육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제로 안
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

용을 골자로 폭염에 대비한 노인 등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
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할 때 여름이
유난히 길고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가
운데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폭염 피해
가 우려된다. 폭염 사망자는 2010년 8
명, 2011년 6명에서 2012년에 14명으
로 늘었고 폭염 환자도 2010년 455
명, 2011년 433명에서 2012년 984명
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Hana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flight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for various tour services.